

SCU e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Vol. 18

CYBER WORLD SCU 스마트 웨이브 3.0
SCU TODAY 아세안사이버대학교 프로젝트
PEOPLE 1인 4역 수퍼우먼 최경은 외
SPECIAL ISSUE 제7대 강인 총장 취임
SCU PARTNER SCU & 농협중앙회

2012 DT BRAND POWER

DT브랜드파워대상



학교법인
신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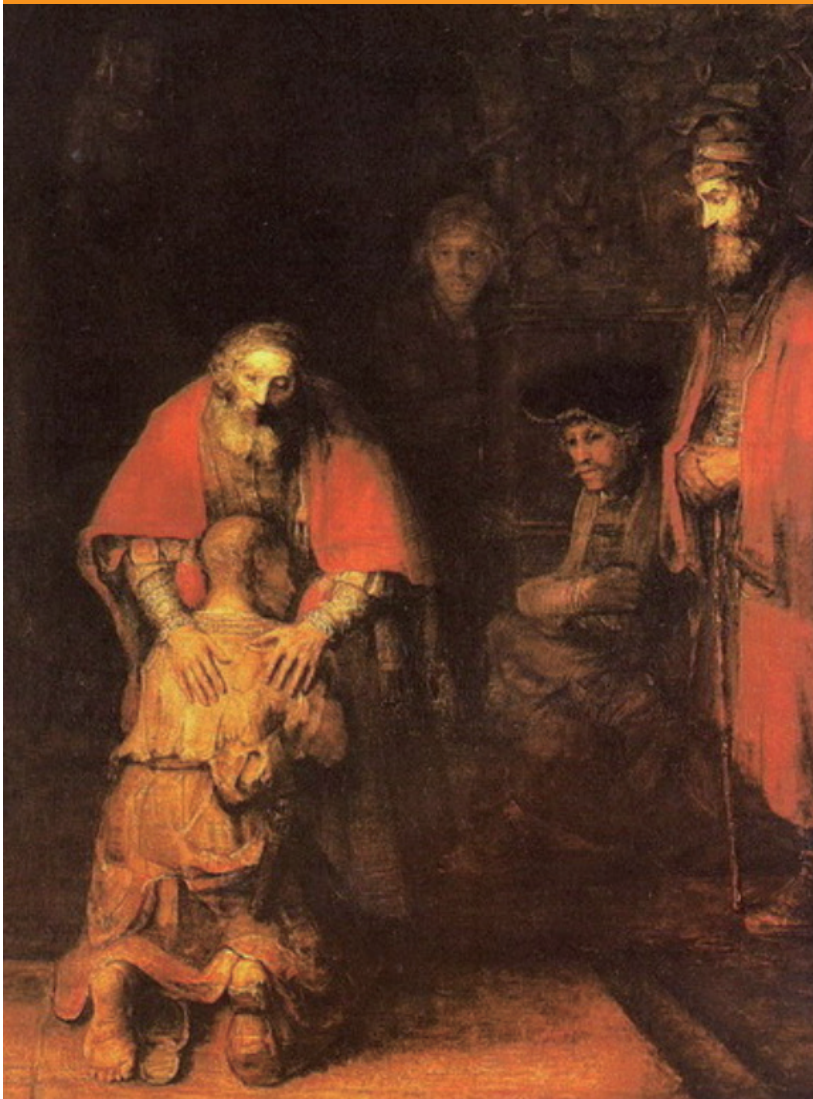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아버지의 마음

이 가을, 청명하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우리의 죄가 전가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으면 좋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과도 같이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심이 마음 깊이 다가오는 가슴 빠근한 가을이면 좋겠다. 글 | 박한결 목사

렘브란트의 화폭 속으로 떠나는 여행 ④



탕자의 귀환 <유채, 1662>

둘째 아들은 시골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나,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했다. 오히려 집보다는 세상이 근사하게 보였다. 어느 날 독단적인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로 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 아버지는 마음이 편치 않다. 금지옥엽(金枝玉葉) 기른 아들인데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기는커녕 ‘어차피 아버지가 죽으면 내 것 되는 재산’까지 내놓으라고 떼를 쓰니 가슴이 무너진다.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등을 돌린다. 아들은 마지막까지도 야속하게 대문을 박차고 나선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이 최고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아들은 그 후...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어 피골이 상접해 있었다. 돈과 양식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것이다.

아들이기에, 자신의 아들이기에 과거를 묻다

아들은 문득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다.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싫지만, 염치 불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어 발걸음을 뚫는다. 동네 어귀에 이르자마자 그의 뻣뻣한 눈에 들어온 것은 아버지의 모습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끌어안는다. 아들은 집을 떠날 때만 해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빨아 입었는지도 모를, 야윈 몸을 겨우 감쌀 수 있는 낡은 누더기와 다 닳은 신발뿐이다. 머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죄수의 머리처럼 뻣뻣 밀려 있다. 세속적 쾌락에 빠져 썩은 연못 같은 모습, 돼지를 치다 온 더럽고 추한 아들, 그래서 손가락을 대는 것조차 역겨웠을 것이나 아버지는 그를 기꺼이 안아준다. 아들이기에, 자신의 아들이기에 과거를 캐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용서와 대접을 받은

아들은 몸 둘 바를 모른다. 잘못을 책망하지도, 그동안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지지도 않는 아버지의 사랑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갑자기 추위와 햇빛,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굶지 않은 눈길과 손가락질로 상처 입은 마음에 서러움이 복받친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들은 녹아 무너진다.

회개할 때 용서받은 자로서, 아들로서 다시 서다

아버지의 어깨에는 붉은 색 망토가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 보혈은 아버지의 마음, 즉 사랑과 용서, 그리고 죄 사함의 권능을 지닌다. 이제 탕자에게 노예의 모습과 죄인의 악취가 있기는 하지만 노예나 죄인은 아니다. 아버지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아들로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의 두 손은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하시던 예수님의 손을 떠올리게 한다.

렘브란트가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그림을 완성했지만, '탕자'만큼 동일한 주제로 많은 작품을 만든 것은 없었다. 간략히 그린 스케치부터 정밀하고 따뜻하게 색을 입힌 작품까지 다양하다. 특별히 렘브란트는 세속에 찌든 탕자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투영한 작품도 선보인다. 인간적으로 흠이 많았던 사람이라, 고약한 성격이나 행동으로 많은 지탄을 받기도 했지만, 본인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았기에 렘브란트는 자신 스스로가 탕자임을 고백하고 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을 죄인으로 묘사한 탕자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우리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영혼의 회개를 본다.



박한결 목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및
교육대학원(M. Edu)
(현) 온서울교회 교육목사
(현) 신일중고등학교 교목

CONTENTS

- 02 BIBLE STORY | 렘브란트의 화폭 속으로 떠나는 여행 ④
- 04 PHOTO & STORY | 제8기 하계 해외탐방 '중국 상해'
- 06 CYBER WORLD | SCU 스마트 웨이브 3.0 서비스 오픈
- 08 SCU TODAY | 아세안사이버대학교 프로젝트
- 10 PEOPLE·여기 e 사람
 - ① 국방대학교 교수 뱃 오개 풀케슨
 - ② 프리마 발레리나 강수진과 함께 하는 마스터 클래스
 - ③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수퍼우먼' 최경은 학우
 - ④ 부동산학과 신입생 '종말이' 객진영 학우



강수진 마스터 클래스

- 16 PEOPLE·사제지정 |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 & 제자 배서운 학우
- 18 SCU MENTORING | 노인복지학과 멘토링 그룹 '청록스터디'
이성숙(멘토), 고영훈, 백승덕, 안선희, 이성영
- 20 PLUS WE | 학습수기 우수자가 말하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
- 22 EDU INFO | 주한 스웨덴대사 라르스 다니헬손 특강
- 24 CLICK! SCU | 2012년도 베스트 동아리 '기동대', '민들레'
- 26 SPECIAL ISSUE |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제7대 강 인 총장 취임
| 오픈 캠퍼스 투어



후기 학위수여식

- 28 SCU PARTNER | SCU & 농협중앙회
- 30 SCU LIFE | 문화·공연·사이버예절·독자퀴즈·베스트셀러 추천
SCU 200% 활용하기 시리즈 ②
- 33 SCU NETWORK | 2012 한마음 대축제 외 학교 소식, 신입 보직교수 임명
- 35 SCU NETWORK | 교수동정

- 발행처 | 서울사이버대학교
- 편집주간 | 이향아 교수
- 편집위원 | 고운승, 김영민, 김현아, 박병석, 심선경, 임세희 교수
- 발행일 | 2012년 11월
- 기획편집 |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325, (주)디플랜네트웍 (02)518-3430

제8기 하계 해외탐방 '중국 상해'

여행, 그 이상의 의미로 남게 될 탐방 中國

서울사이버대학교의 2012년 하계 해외탐방 프로그램이 지난 6월 30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푸둥공항에 첫발을 디딘 27명의 탐방단은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를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와 더불어 중국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소와 활동에 참여하며 글로벌 인재로서의 열린 시각을 한층 넓혔다. 글 | 편집부

- ① 동방명주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탐방단
- ② 사탑 앞에서 단체사진을 찍은 탐방단
- ③ 송성가무소
- ④ 고풍스런 건축미의 예원
- ⑤ 대한민국 임시정부유적지



독립운동의 감동을 느끼며 걷는 중국의 옛 거리

“지난 2007년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해 8월 전국 대학생 50여 명을 데리고 중국의 항일운동 사적지를 탐방했었죠. 그때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운영요원으로 갔던 거였지만, 이번 탐방은 학생 신분으로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이라 더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이번 탐방에서도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를 다시 돌아보며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였던 순국선열들의 삶을 반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마현모 학생이 이번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상해의 독립운동사적지를 다시금 둘러보기 위해서다. 실제로 탐방의 첫째 방문지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려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유적지다. 당시 쫓기며 활동하던 독립 운동가들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장소가 그들이 활동했던 바로 그곳인지는 알 수가 없다. 상담심리학과 이경란 학생은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동안 애국심과 함께 무언지 모를 약간의 분노가 일어 감정이 폭발치기도 했다”고 한다. 이어 탐방단은 예원에 들러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보고, 윤봉길 의사 의거지인 루쉰공원(당시 홍커우공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름다운 경치와 중국 문화의 스케일에 감탄하다

둘째 날에는 상해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 이동거리인 항주로 이동했다. 항주에서는 성황각, 그리고 청하방 옛 거리, 서호 등을 둘러보았다.

셋째 날에는 운하가 종횡으로 뻗어 동양의 베니스라고 불리



는 소주로 이동했다. 소주는 역사가 깊고, 아기자기한 볼거리들이 시내 곳곳에 많이 숨어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탐방단이 들른 유원이란 정원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정원으로 이름이 높다. 각각의 영역마다 다른 느낌을 뿜어내는 이곳은 건물의 직선과 곡선, 밝음과 어둠, 높음과 낮음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 날에는 중국의 청동기, 도자기 및 서화가 소장되어 있는 상해박물관과 1994년에 완공된 높이 467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 중의 하나인 동방명주 등을 돌아보았다. 특히 동방명주에서 바라보는 황푸강과 현대식 고층건물이 즐비한 상해의 신도심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었다.

이번 탐방을 통해 경영학과 서향란 학생은 “탐방 전에는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경영학적 방식으로만 탐방의 의미를 풀어나가

고자 했으나 탐방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여러 팀원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더 폭넓은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경영학 공부만이 아닌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공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한다. 한편으로 부동산학과 강충원 학생은 “강의실이 아닌 타국, 해외탐방지에서 함께 호흡하고, 숙식을 함께 하는 동안 교수님들과 학우들의 소중함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며, “탐방기간 내내 깊이 있는 탐방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의 모습에 지난 4년 간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수학한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깨달음을 탐방단 모두가 함께 나누었다.

SCU 스마트 웨이브 3.0 서비스 오픈

지금은 SCU 3.0 시대 공부하기 어렵지~ 않아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우들의 학습 파트너 SCU 앱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2010년 SCU 1.0 출시 이후 멀티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SCU 앱 활용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던 2011년에 출시된 SCU 2.0이 모바일러닝 서비스의 완성이었다면, 올해 새롭게 선보인 SCU 3.0은 스마트러닝 서비스로 수준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SCU 3.0은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을까? 글 | 편집부



하나, 최초로 구현한 원 소스 멀티 유즈

SCU 앱 서비스 초반에는 스마트 기기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서비스 이용대상에 제한이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각기 다른 OS와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들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앱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기존의 어느 사이버대학에서도 제공하지 못했던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환경을 구축했다. 이제까지는 하나의 콘텐츠를 제작한 후 일일이 새로운 포맷으로 변환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층 앞선 기술로 한결 수월해진 콘텐츠 제작 능력을 바탕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3년까지 스마트 기기 제공 콘텐츠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둘, 학습활동의 획기적 강화와 주요 SNS 통합

SCU 3.0은 사이버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낮은 유대감을 한층 높이고, 여러 사람들의 학습 욕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강의상담, 자

유게시판, 토론게시판, 학습자료실 등 목적에 맞는 게시판을 만들어 단순한 Q&A 게시판을 넘어선 실질적인 학습지원 활동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주요 SNS를 통합하여 사회적인 교류까지 지원하고 있다.

셋, 편리한 강의 정보 이용

이와 함께 SCU 3.0은 모든 과목의 MP3 파일과 PDF 학생교안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모든 강의실에서 바로 다운로드와 플레이가 가능하다. 더불어 강의동을 통해 매 학기별 각자가 수강한 과목의 주요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도입해 보안을 강화했으며, 모바일웹과의 통합, 대학원 지원, 앱 자체 배포 등이 가능하다. 스마트 시대에 적합하게 업그레이드 된 SCU 3.0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연말까지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2012년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탐색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스마트러닝 서비스 시대로의 탈바꿈이 시작된 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스마트러닝은 SCU 3.0과 같이 현재 PC에서의 학습방법을 스마트 기기로 옮기는 형태를 뛰어 넘어, 처음부터 스마트 기기 환경에서의 교수학습을 먼저 고려하고 추후 PC에서의 교수학습을 생각하는 '설계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태국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부국장을 대표단으로 한 아세안사이버대학교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9월 13일 학교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아세안사이버대학교(ASEAN Cyber University) 프로젝트

세계 최초로 국가 간 연합대학 기대

지난 8월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매우 반가운 행사가 있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주관 아래 CLMV(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베트남)의 교육 유관 부처를 포함해 각 대학 관계자 및 AUN(ASEAN University Network)과 함께 <아세안사이버대학교 프로젝트>에 대한 MOU체결이 있었다. 이로써,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아세안대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학술교류를 주도하게 되었다. 글 | 편집부

아세안사이버대학교란 한국과 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국을 아우르는 사이버대학교로,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를 받을 수 있다.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된 이 프로그램은 아세안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화두에 올랐다. 한국의 선진화된 e-Learning 기술과 사이버대학교 운영 노하우를 아세안 국가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있었다. 2011년 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모에 의해 관련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최초 사이버대학교로서 10년 이상 축적해 온 교육콘텐츠와 인프라의 우수성을 명실상부하게 인정받은 셈이었다.



아세안으로 확대된 'SCU e-Learning'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최근 아세안 주요 대학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현재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4개국에 대해 e-Learning 기술과 각종 콘텐츠 개발 및 운영방법 등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교의 e-Learning 시스템은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한국과 아세안대학들 간의 공동연구 및 출판, 인적자원 교류에 있어서도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사이버대학교

는 유례 없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SCU e-Learning WAVE'를 개발해 세간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차세대 e-Learning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WAVE는 e-Learning 콘텐츠와 학습 도구 간의 결합과 해체가 자유롭고, 외부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SNS서비스까지 학습도구로의 도입이 가능해 보다 효율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한 교수-학생 혹은 학생-학생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의 참여와 토론 위주의 능동적 수업 기회를 제공, 콘텐츠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교육방식으로 꼽힌다. 참고로 SCU WAVE는 사이버대학교 사상 처음으로 e-Learning 국제대회 <IMS Learning Impact Award 2011>에서 은상을 수상, 국내 특허를 취득한 글로벌 시스템이다.

첨단 단독 캠퍼스 갖춘 SCU 교육환경에 감탄

한편,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아세안사이버대학교 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서는 올 9월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개시될 강의 콘텐츠 운영에 관한 실질적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한국과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는 각각 교과목 개발교수가 촬영한 12개의 e-Learning 콘텐츠를 회원대학 재학생이라면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도록 대학별 개설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9월 13일에는 태국 교육부 고등교육위원회 부국장을 대표단으로 한 아세안사이버대학교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사업경과를 안내하고, 그들의 주요 관심사인 SCU Wave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국제회의실, 세미나장, 강의실, 실습실에서부터 근래 준공된 대규모 연구동에 이르기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인프라에 대해서도 소개가 이루어졌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5년까지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을 목표로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노력과 기여를 자양으로 한껏 증진될, 한국 및 아세안 사이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기대된다.

Mini Interview

권구순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아세안사이버대학교 설립추진본부장

글로벌 사회공헌의 중심으로 우뚝!



<아세안사이버대학교 프로젝트>에 있어 2012년은 도약을 위해 필요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공동교육 및 특성화과정을 설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학위과정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 CLMV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 등의 대학들과도 학점교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을 통해 아세안지역 내 고등교육의 기회와 가치가 크게 확대되고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강화된 글로벌역량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온라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PEACE MASTER BENGT-AKE FOLKESON

벵 오케 폴케손 Bengt-Ake Folkesson 국방대학교 초빙교수

지구촌에 사랑의 가치 전파하는 평화 유지활동 전문가

Bengt-Ake Folkesson 교수는 유엔평화유지활동 분야에 관여하며 많은 분쟁국을 경험해 왔다.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에서 반군지역의 안전 및 평화협정 감시업무를 했고, 중동의 레바논과 시리아 접경 골란고원에서도 감시단 및 훈련관을 맡아 일했다. 90년대 중반 유고내전 당시에는 몬테네그로와 크로아티아에서도 정전 감시업무를 맡은 바 있다. 이밖에도 2009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아이티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등지에서 분쟁 이후 평화유지와 관련된 업무에 전념했다. 글 | 편집부

Bengt-Ake Folkesson 교수는 지난 40년 간의 군 생활 대부분을 평화유지활동에 전념해 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국방대학교 국제평화활동(PKO ; Peace Keeping Operation)센터에 초빙교수로 지난해 11월에 부임해 한국에 오게 됐다. 어느덧 한국생활을 한 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어떤지 궁금했다.

평화유지활동의 전문가, 한국에 오다

지난 40년간 평화유지활동에만 전념하였던 그는 처음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전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남북한 접경지대에 있는 판문점의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지원을 해서 올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관여해야 해서 기회가 닿지 않았던 것이다. 치안이 불안한 분쟁지역에서 주로 근무해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던 그는 1998년 유엔 레바논정전감시단 당시 자신의 상관이자 선임 감시장교였던 히긴스 대령이 현지 지역정찰을 마치고 복귀하다 헤즈볼라에 납치되는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는다.

“비상이 걸렸지요. 바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어 그를 석방하라는 결의안까지 채택이 됐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시로 지휘권을 이양받아 사태의 파악과 감시업무를 수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1년 반이 지나서야 히긴스대령이 헤즈볼라로부터 고문과 취조를 받다가 결국 교수형으로 죽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고 나중에 그의 사체가 베이루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평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시도

그는 현재 국방대학교에서 근무하며 유엔의 개념과 PKO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아울러 임무단 본부에서 근무할 참모장교들을 별도로 구분



해 정세판단, 작전계획 등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감시장교와 참모장교가 각각 맡는 업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 유엔본부에서 이수했던 교육과 스웨덴 국제센터의 평화지원작전국에서 설계했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참모장교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IT한국의 대표 모델

평소 한국이 IT기술을 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용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던 Bengt-Ake Folkesson 교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방문해 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한다. 한마디로 ‘환상적’이라는 것이다.

“제가 2004년도에 스웨덴 평화지원작전국에서 평화유지활동관련 훈련을 운영할 시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와 협력한 적도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의 이러닝과 비교해 본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닝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단순히 자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하는 수준이니까요.”

평화유지활동의 전문가인 그가, 국방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많이 전해주시기를 기대한다.

Bengt-Ake Folkesson 교수는 한국의 놀라운 교육열에 감탄하며, 이런 견지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훌륭한 인재양성의 산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스웨덴의 명문대인 스톡홀름대학교와 학술교류를 맺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이 SCU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해서 각자 목표했던 바를 이루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

프리마 발레리나 강수진과 함께하는 발레 영재 마스터 클래스



MASTER CLASS with KANG SUE JIN

2012 서울국제발레페스티벌 행사 일환으로 세계 정상의 프리마 발레리나 강수진이 우리나라 발레 꿈나무들을 찾아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발레실에서 레슨을 가진 강수진 발레리나는 “무대에서 감정을 표현하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며, 땀과 노력만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밝혔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브람스의 음악과 발레리나의 아름다운 울동이 어우러졌다. 지난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발레 영재를 위한 월드스타 강수진의 마스터 클래스’가 펼쳐진 것이다. ‘2012 서울국제발레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열린 강수진의 마스터 클래스는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 수석발레리나인 강수진이 우리나라 발레문화 발전을 위해 발레꿈나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레슨을 하는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발레와 친하다?

서울국제발레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발레 무용수들은 그동안 연습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 조금은 난감한 입장에 처했었다. 이와 같은 소식을 건네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은 흔쾌히 학교시설을 내어주었다. 이 이사장이 발레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은 알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국립발레단 명예이사장으로서 평소에도 발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았던 까닭이다. 한국발레협회는 국립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과 유니버설 발레단 문훈숙 단장 등 국내 무용계 명사들이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번 발레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독일 인스부르크 주립 발레단과 한국인 발레리나 박세은, 파리오페라 발레단 등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발레실을 무료로 대관해 주기도 했다.

발레엔 ‘강수진 키즈’가 있다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해 한국 발레의 미래를 꽃 피울 20명의 발레 영재들은 강수진의 말을 한 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반짝였다. 강수진은 발레 동작을 직접 선보이며 “무대에서 감정을 표현하려면 내면에서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골프에 ‘박세리 키즈’가 있다고 한다면, 발레엔 ‘강수진 키즈’가 있다. 강수진은 동양인 최초·최연소로 세계 5대 발레단인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 입단해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무용수다. 유일한 종신 단원이자 12명의 주역 무용수 중 서열 1위의 프리마돈나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은 못내 가슴을 벅차게 할 정도다. 무용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브노아 드 라당스(Benois De La Danse)’에선 최우수 여성무용수상을 수상했고, 독일 주정부로부터 아시아 최초 Kammertanzerin(궁정무용수) 인증을 받기도 했다.

강수진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신데렐라가 된 경우는 아니다. 현역 최고령 발레리나로서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는 질문에 그녀는 ‘땀’이라고 대답한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가 아파요. 아픈 것도 무용수 생활의 일부분이죠. 아무 데도 아프지 않은 날은 오히려 ‘내가 어제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강수진의 별명은 “연습 벌레”. 하루 10시간을 넘게 연습하는 날이 허다해 발레 신발인 토슈즈를 한 시즌에 무려 150여 개를 버려야 했다. 하루에 최대 19시간까지 연습한 적도 있다고 하니 그녀의 발레 열정은 확실히 남다르다. 지금까지 그녀가 신었던 토슈즈는 수천 개에 이르지만 이처럼 많은 신발들도 그녀의 발을 보호해 주지는 못해 강수진 씨의 발톱은 지금도 갈라지고, 벌어지고, 죽고, 굼는 경우가 허다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을 가지게 된 것은 강수진 씨의 숙명이 아니었을까?



① 마스터 클래스 참관에 앞서 강수진 씨 부부와 발레에 대한 소담을 나누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세웅 이사장.

② 이틀간의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발레에 대한 꿈을 새롭게 꾸게된 발레 꿈나무들.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3학년, '수퍼우먼' 최경은 학우

최경은 씨는 수퍼우먼으로 통한다. 집에서는 성실한 아내이자 엄마요, 사회에서는 똑 부러지는 직장인이고 학생이기 때문이다. 남들과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보내면서도 네 가지 역할 모두에 충실한 그녀. 힘들법도 하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를 통해 공부 재미에 푹 빠진 그녀는 1인 4역도 거뜬하다고 말한다. 글 | 편집부

늘어가는 공부 재미에 1인 4역도 거뜬해요



직장인이자 엄마, 아내, 학생이라는 1인 4역을 멋지게 소화하고 있는 행복한 수퍼우먼 최경은 학우.

대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부서에서 근무하는 최경은 씨는 다시금 공부에 푹 빠지게 된 계기는 봉사활동이었다.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멀티미디어 교육 강사로 나서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공부를 하겠다고 결심한 후에 여러 사이버대를 비교해 봤어요. 오랜 전통은 물론이고 인지도 면에서나 교육 콘텐츠 수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최고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배우고 싶은 영역과 교육과정이 일치해서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최경은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금 깨닫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일반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하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사이버대는 소속감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있는 ‘SCU 멘토링 프로그램’과 ‘오프라인 특강’을 비롯해 OT나 MT를 통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고 있다.

“학기마다 이수해야 하는 강의를 다 들으려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세 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활용하면 출퇴근 시간에도 공부할 수 있어 좋아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덕분에 진도를 맞추는 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바쁜 외중에 짊어 내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일까. 날로 늘어나는 공부 욕심을 도무지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해 퇴직 후에 ‘어린이 멀티미디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다는 더 큰 꿈까지 그렸다.

“나이에 맞춰 때마다 진학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그런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일단 첫발을 내디뎠으니 가족들에게 더 당당하게 보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와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시행 등을 꾸준히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최경은 씨. 사이버대의 명문으로 꿈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꿈의 파트너가 되어 주길 바란다는 희망의 한 마디를 던진다.

부동산학과

1학년, '종말이' 곽진영 학우

8월 25일, 여름의 끝자락에서 부동산학과는 신입생 환영회 및 MT를 열었다. 양평 쉼빌 호텔에서 실시한 이번 신입생 환영회에는 낯익은 얼굴 하나가 보였다. 1993년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알려진 '종말이' 곽진영 씨가 그 주인공이다. 한편, 국민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통해 얼굴이 알려진 배우 신소민 씨도 입학 동기다. 글 | 편집부

내 삶을 바꾸는 학업 평생 배우고 싶어요



곽진영 학우는 자신이 살 집을 구상하고, 또 그곳에 사는 상상을 하며 들뜬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힌다.

곽진영 씨는 1993년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온 국민들에게 자신의 끼와 재능을 보여주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종말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터. 그런 그녀가 부동산학과 하계 MT에 참여했다. 부동산학과 1~4학년 학우들과 함께한 하계 MT에 그녀가 참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녀의 남다른 학우애를 보여준 계기가 된 것만큼은 분명하다. 사실 곽진영 학우는 부동산에 대해선 문외한이다. 그런 그녀가 부동산학과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뭘까?

“부동산학과에 이재웅 교수님과 워낙 친했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으니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불안한 것들이 많았죠. 사업을 하고 있으면 경영학과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곤 하지만, 저는 투자의 가치보단 제 삶의 가치를 먼저 찾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곽진영 학우의 말대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업을 하나 하고 있다. '곽진영의 종말이 푸드'가 바로 그녀가 하고 있는 사업이다. 부동산학과에 들어온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곽진영 학우는 또 이렇게 얘기한다.

“저도 사실 전세로 집을 살고 있어요. 집을 몇 채씩 가지고 투자를 하려는 목적보다는 자신이 살 집을 구상하고, 또 그곳에서 사는 상상을 하면 마음이 들떠요. 또 여기 양평처럼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을 워낙 좋아해요. 이런 곳에서 전원생활을 꾸리고 싶은 마음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선은 초심으로 학과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먼저겠지만요.”

부동산학과에 함께 입학한 신입생 신소민 학우도 학업에 대한 열정만큼은 뜨거웠다. 연예계에 종사하다보니, 후일의 재테크와 투자 등 다양한 곳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그녀는 부동산학과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연기자로서는 원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알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되려고 해요.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한 것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늘어서도 평생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삶의 미덕이라고 말하는 곽진영, 신소민 학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과 공부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녀들은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학생 들임에 분명해 보인다.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 & 제자 배서운 학우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마음 바로 '진정성'이 만든 에너지

예부터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福)이라 하였다. 좋은 인연만큼 삶의 중요한 자양도 없기 때문이다. 사는 동안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지곤 하는 인생의 실루엣. 배서운 학우에게는 채정민 교수가 딱 그와 같은 존재였다. 성향이 너무 달라 더 돈독해질 수 있었다는 스승과 제자를 만나, 특별하고도 가슴 따뜻한 사연을 들어보았다. 글 | 편집부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사진·오른쪽)와 배서운 학우(사진·왼쪽)는 등대 같은 스승이자 이상적인 제자이다.

스승님을 알게 된 것은 생애 큰 행운

배서운 학우 2011년 부푼 꿈을 안고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학년생으로 편입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심각한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게 되셨죠. 순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홀로 어머니 모시며 공부까지 병행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던 그때, 같은 학과 선배 한 분이 '채정민 교수님과 친분을 쌓으면 답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 귀뜸을 해줬죠. 그리고 처음 채

정민 교수님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상당히 감동이었어요.

채정민 교수 하하하, 정말인가요? 그 선배가 누군지 알면 인사라도 전해야 할 것 같네요. 서운 씨 또한, 나한테는 훌륭한 제자이니까요. 그나저나 구체적으로 내 수업 어떤 부분에 감명을 받았는지, 무척 궁금하군요.

배서운 학우 특히 교수님께서 직접 작성해 나누어주신 ‘학습교안’이요! 수강자들의 이해와 흥미를 북돋기 위해 각 대목마다 정성을 들이신 게 눈에 보여 열심히 학업에 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채정민 교수님의 ‘학습교안’은 자꾸만 들춰보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이후 채정민 교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제 노력이 시작되었답니다(웃음). 작년도 사은회 자리가 결정적 계기였죠, 아마?

채정민 교수 아아.., 기억나요. 전부 4학년생들이었는데, 서운 씨 혼자만 3학년인 채로 참석했지요. 참 특이한 학생이다 싶었어요, 하하. 그런데, 나 때문이었어요?

배서운 학우 네, 전혀 모르셨죠? 호호. 학교생활에 관한 조언을 얻고 싶는데, 마땅한 기회가 없어 고민하다가 어렵게 용기 내 찾아뵈는 것이었어요.

채정민 교수 영광인 걸요(미소). 나는 그저 ‘힘들면 언제든 사무실 문을 노크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 듯한데.

배서운 학우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정신적 건강은 물론, 학구열까지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저 장학금도 받았잖아요, 교수님(웃음).

채정민 교수 네, 자랑스러워요. 매사 최선을 다하는 서운 씨이기에 가능한 결과였죠. 서운 씨는 근래 보기 드물게 대단히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학생이에요. 스승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반가운 제자랍니다.

인생의 지표를 새로이 쓰게 한 원동력

배서운 학우 혹시 아세요, 교수님? 교수님은 삶에 대한 제 가치관 전반을 변화시킨 분이기도 하세요. 사실 제가 융통성이 다소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스스로 정해 놓은 열개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무조건 잘못됐다 치부하곤 했죠.

채정민 교수 그러다 보면 마인드도 적잖이 편협해지죠.

배서운 학우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틀을 시원하게 부숴주셨어요.



알고 지낸지 이제 겨우 1년 남짓, 그러나 채정민 교수에 대해 배서운 학우는 ‘살아가는 데에 다채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등대’라고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정의한다.

채정민 교수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예를 들면요?

배서운 학우 교수님의 수업방식이요. 배려를 바탕으로 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시잖아요. ‘화려한 치장이거나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여유 있게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라’시던 말씀이 아직도 뇌리에 또렷이 각인되어 있어요.

채정민 교수 서운 씨는 내게 있어 지극히 이상적인 학생입니다.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장점과 특징을 십분 활용할 줄 알아서, 나 역시 지도하는 과정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더구나 요새는 임원진으로까지 활동하며 동기 및 후배들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면서요? 참 보기 좋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여태 해온 것처럼만 꾸준히 임해 준다면 분명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서운 씨는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배서운 학우 네, 교수님.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졸업한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섭섭하고 심심해요. 왜 진작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알지 못한 걸까, 그저 아쉽기만 하네요. 종종 찾아 뵈게요, 교수님.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정민 교수 나를 포함해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님들은 항상 학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워할 것 없어요. 어느 스승이 제자들을 마다하겠어요. 부담 없이 찾아오길 바랄게요. 그 다리 역할, 앞으로도 서운 씨가 틈틈이 해 줄 거죠?

배서운 학우 그럼요! 염려 마세요, 교수님(웃음).

노인복지학과 멘토링 그룹 '청록스터디'

'어울리는 삶', 함께 할 수 있어 행복

무릇,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힘은 '사람'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위로도 없는 까닭이다. 노인복지학과 멘토링그룹 '청록스터디' 멤버들에게는 서로가 그와 같다는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늘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멘토링 그룹 '청록스터디'에는 사람 냄새가 물씬 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이성숙 멘토 특유의 친밀감이 그 자양.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학교생활이 더할 나위 없이 즐겁다. (왼쪽부터 백승덕, 이성영, 이성숙 멘토, 안선희, 고영훈)

가을이 잔뜩 무르익은 평일 저녁, ‘청록스터디’ 5인방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인천캠퍼스에 등장했다. ‘인천’이라는 지역적 유대감 덕분에 자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다는 멤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인 듯했다.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멘토링

이성숙 | 어느덧 2학기네요. 다들 감회가 남다르실 듯한데, 어떠신가요?

백승덕 | 설렘과 두려움을 반반씩 안고 서울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에 입학한 게 꼭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갔다니, 어리둥절한 한편 뿌듯하기도 합니다(웃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번 해보고 힘들면 그만두자’는 마인드로 학교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멘토님을 만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사 적극적으로 멘티들을 돕는 모습이 저로 하여금 반성과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죠.

이성영 | 맞습니다! 멘토님의 열의를 경험한 멘티라면 도저히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멘티들을 일일이 방문해, 상담과 격려를 전하는 정성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이 세상에 이성숙 선배님 같은 멘토는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선희 | 정말 신세를 많이 지었죠. 이성숙 멘토님이 아니었다라면, 사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지난 3월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멘토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먼저 연락을 해 오셨어요. 그러곤 ‘저 역시 몇 해 전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를 떠나 보내야 했기에 안선희 멘티님 심정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절대 학업의 끈을 놓으셔서서는 안 됩니다. 힘닿는 데까지 제가 도울게요. 믿고 의지하세요 돼요!’ 끊임없이 저를 다독이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너무 감사하고, 든든했죠.

백승덕 | 동감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버릇처럼 말씀

하시는 멘토님의 당부가 항상 용기를 북돋는 원동이 되니까요. 낯선 시스템으로 인해 행여 기가 죽진 않을까 학습로드맵 짜는 일에서부터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까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멘토님은 정말이지 제가 2학기 등록을 결심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성숙(멘토)



고영훈(멘티)



백승덕(멘티)



안선희(멘티)



이성영(멘티)

탄탄한 결속의 비결은 ‘공감대’

이성숙 | 저희 ‘청록스터디’의 강점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비슷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성영 | 네, 맞습니다. ‘만학’이라는 공통관심사가 그룹 내 화합과 소통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멤버들 간의 나이차가 많으면 돈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안선희 | 상대 입장을 수궁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이성영 | 멘토님이 저희 멘티들과 같은 또래라는 건, 진짜 행운이에요. 앞서 겪은 바를 낱알이 알려주시니 저희로서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더불어 느지막이 공부에 도전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고요.

고영훈 | 듣고 보니 제가 인천에 사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 같은데요! 올 2학기 3학년으로 편입해 현재 적응 중인 단계인데, 이성숙 멘토님께서 제가 인천시민인 것을 파악하시고 선뜻 ‘청록스터디’로의 참여를 제안하셨거든요.

이성숙 | 또한 저는 저희 멤버들이 ‘청록스터디’에만 국한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학교생활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백승덕 | 제 의견도 같아요. 멘토님. 멘토링그룹 간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어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듯해요.

이성숙 | 네, 염려 마세요. 남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 부지런히 땀 각오거든요!

공부가 어려우신가요? 우리 이야기를 들어봐요!

온라인 교육에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멀티미디어 기기가 낯선 이들도 있다. 한편으로 다시금 공부를 시작하면서 옛날 방식을 고수하다 혼란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시행착오도 결국은 더 큰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공부의 매력이다. 사이버 상에서의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학습수기 공모 우수자 3명으로부터 들어본다.

학습수기 우수자가 말하는 효과적인 학습방법

자기주도 학습으로 성취하는 목표 글 | 변은주(가족상담학과 3학년)



학부 경험이 없던 나는 대학생활에 대해, 특히 온라인 학습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멘토링 신청 공지가 올랐을 때 망설임 없이 신청을 했다. 졸업하는 타 학과 선배의 우수학습수기 발표내용 중 국회전자도서관 논문 활용법과 주차별 수업진도는 해당 주차에 꼭 수강해야 한다는 의지에 강한 인상을 받고 나도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였다. 중간고사 후 다시 시작되는 9~10주차에 방심하면 진도를 따라잡는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강의의를 들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도서관에서 교재를 대출하

여 틈틈이 관련 내용을 읽고, 인터넷으로 관련어를 검색하거나 강의상담 게시판에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렇게 진행되는 학기마다 멘토에게 조언도 구했고, 멘토링 게시판이나 학과 게시판 글쓰기를 통해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이를 통해 공부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온라인 학습이라고 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독학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 진정 우수한 학습방법은 남는 시간을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고 좀 더 학업을 우선시하여 가정과 일만큼 자기주도적인 학습전략으로 임하는 것이다.

학습전략 수립과 e도서관이 비결 글 | 조잉경(사회복지학과 2학년)



강의 수업을 앞두고 학교 홈페이지를 열어 이곳 저곳을 다녀보았다. 또한 어떻게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대학생활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한 상태라 학과사무실로 전화문의의를 하면서 대략적인 대학생활의 정보를 파악했다. 수강신청 기간에는 전공 기본 과목, 자격, 실습선수과목 등을 염두에 두고 시험시간표를 확인하여 수강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강의의 수강 전에는 수업계획표를 확인하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도표화를 하는 것이 좋다. 강의를 수강할 때 과목공지사항을 파악하여 과제 제출기간, 토론기간, 수시시험 등의 사항들을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의의 수업을 할 때는 정상적인 속도로 수업을 듣는 게 좋다. 또한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의 미소나 억양을 기억해 두면 내용이 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 과제를 위한 자료검색을 할 때는 서울사이버대학교의 e도서관을 주로 이용했다. e도서관의 창을 열면 학술지 논문이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 아이콘 밑에 국가지식 DB, RISS, KISS가 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환경적인 요인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먹고 시작하니 공부로 인한 행복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 기쁨을 모두와 나눌 수 있어 기쁘다.

혼란 딛고 얻은 나만의 자신감 글 | 권현주(사회복지학과 4학년)



중소기업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나는 '몇 년 뒤면 은퇴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었다. 사회사업과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을 주위에 이야기했더니 '사회복지학을 공부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조언을 해 주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사이버대학이 떠올랐다. 처음에는 사이버대학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크지 않았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치러낸 중간고사 결과는 참혹했다. 며칠 후, 박태정 교수님께 전화가 왔다. 교수님은 "시험지를 보니 공부를 안

한 것은 아닌데 공부하는 방식이 잘못 되었을 수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공부 방식을 변경하여 다시 도전해 보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그 말에 감명을 받은 나는 공부 방식을 바꾸어 기말고사까지 치러보고 그때도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포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강의 전에 교안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강의를 들은 후 다시 교안을 읽는 것으로 공부 방법을 변경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서는 과목별로 교안을 다시 보고 막히는 부분을 강의를 통해 보충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치른 기말고사 성적은 중간고사 때의 낮은 점수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점수가 나왔다. 온라인 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일반대학 못지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바로 서울사이버대학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르스 다니헬손(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대사는 보다 실질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시스템이 한국사회를 건강하게 성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스웨덴대사 라르스 다니헬손 특강 국민행복지수 1위 ‘스웨덴 복지체계’

지난 9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동신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주관 아래 라르스 다니헬손(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대사의 초청강연이 이루어졌다. ‘스웨덴 복지모델을 한국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였다. 글 | 편집부

라르스 다니헬손(Lars Danielsson) 주한 스웨덴대사의 방문소식에 동신교회 교육관이 일찍부터 인파로 넘실됐다.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우뚝 선 스웨덴의 정책적 노하우를 공개,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인 까닭이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허묘연 부총장과 이은주 교수의 진행 및 통역 하에 라르스 다니헬손 대사가 등장하자, 우뢰와 같은 환호가 장내를 가득 메웠다.

스웨덴 복지체계의 핵심은 사회적인 연대와 신뢰

라르스 다니헬손 대사에 따르면, 스웨덴이 50여 년 만에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4가지 요인

이 있었다.

‘사회적인 연대와 신뢰’가 바로 그 첫째다. 요컨대 스웨덴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여타 유럽인들보다 높은 믿음을 갖고 있다. 자그마치 국민의 85%가 이에 해당한다고, 여기엔 정부도 포함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투명하고 사명감 있는 정부 및 비정부기관들의 운영 태도다.

둘째는 ‘루터교의 근로 원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질의 복지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세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이룩하려면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실제로 스웨덴



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기로 유명하다. 셋째는 ‘강한 개인주의와 시장 기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이 인정하는 사회의 기본적 단위는 개인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개별 세금 납부를 실시하고,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국가에서 퇴직자들의 노후를 철저히 책임지기 때문.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장려,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괄목할 만하다.

넷째는 ‘보편복지’를 추구한다는 데에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한다. 이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차원의 기부가 아닌 세금을 통해 소득의 재분배를 실천하는 것이다.

선진사회란 실직자가 제2의 인생을 찾는 무대

더불어 라르스 다니헬손 대사는 한국사회의 가치와 조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복지체계 탄생이 절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초적인 복지요소 몇 가지는 반드시 유념해 주기를 당부했다.

먼저, 여성과 남성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기회가 동등하게 창출돼야 한다. 참고로 현재 스웨덴은 여성의 81%, 남성의 80%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안정적인 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다. 모든 국민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등록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역시 필수덕목이다. 탈중앙화된 건강관리 시스템, 관대한 실업급여와 연금제도 보장도 중요하다. 이때 연금 규모는 경제적 발전수준과 연동해서 조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라르스 다니헬손 대사는 ‘복지란 곧 행복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복지정책을 정비하기 이전에 국민들의 행복지수에 관한 리서치가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속도에 비해 복지프로그램은 상당히 미약한 한국사회에 라르스 다니헬손 대사는 ‘모름지기 선진사회란 실직한 사람들이 절망하기보다 제2의 인생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무대’라며 애정 어린 조언을 전했다. 이 대목에 크게 공감한 듯 청중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Guitar 동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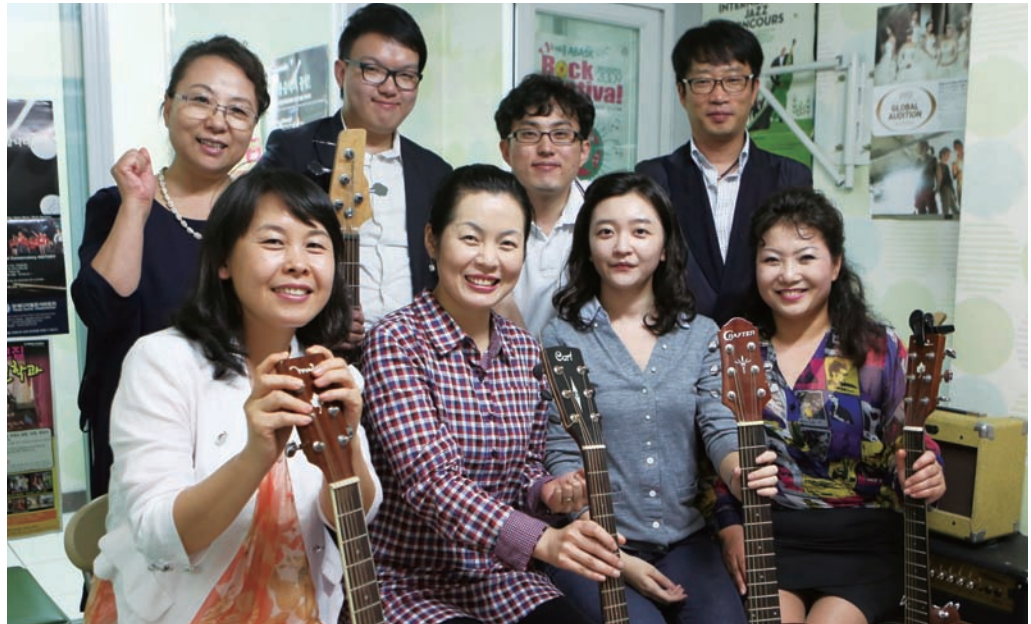
‘기동대’, 여섯 줄로 만드는 사랑의 하모니

다른 현악기와 달리 기타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이미지다. 바이올린처럼 어렵지도, 하프처럼 낯설지도 않고 편안하다. 그리고 즐겁다. 몇 가닥의 줄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목요일에 만난 기타 동아리 ‘기동대’ 회원들도 유쾌하고 편한 사람들이었다. 처음 만났지만 친숙하다. 그건 아마도 그들이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이 주는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법을 아는 상냥한 사람들이기 때문일 거다. 글 | 편집부

‘기동대’는 2010년 기타라는 악기로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 결성된 동아리다. ‘기타로 큰일 내자!’는 동아리 이름처럼 ‘기동대’ 회원들은 공연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선사하고 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기타의 힘!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기



동대’의 연습실을 찾았다. SCU 서울 동부지역 모임의 박은영 회장(사회복지학과 4학년)이 운영하는 실용음악 학원이다. 기타를 배우러 왔다가 도리어 ‘기동대’ 대표가 되어버렸다는 이영신 대표(사회복지학과 2학년)의 지도로 회원들이 기타를 연습하고 있었다.

역시 서울사이버대가 뽑은 2012 우수동아리답다. 6살짜리 아들과 함께 연습에 나온다는 김남화 회원(사회복지학과 4학년)은 “사이버대지만 오프라인에서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위의 부러움과 대학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한다.

새로운 곡을 배우고 연습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모임도 빠듯하다. 계획하고 있는 군부대 위문 공연을 위해 최근에는 뮤지컬 동아리와의 협연 연습이 한창이다. ‘기동대’는 다른 동아리와의 연함이 활발한 편이다. 올해 남양주시의 하나케어센터 공연 역시 서울 동부지역 종이접기 동아리 ‘종이랑’과 학술연구 동아리 ‘징검다리’와 함께 했다.

‘기동대’ 김지영 총무(복지시설경영학과 4학년)는 “보컬, 악기, 율동 등에 재능있는 회원뿐 아니라, 음악을 사랑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참여를 환영한다”며, 향후 지방에 있는 학우들을 위한 지역모임 활성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왼쪽 하단부터 시계 반대 방향 김남화(사회복지학과 4학년), 김지영(복지시설경영학과 4학년), 고슬기(보건행정학과 4학년), 주휴경(복지시설경영학과 1학년), 이영신(사회복지학과 2학년), 김성진(IT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1학년), 최준호(컴퓨터정보통신학과 4학년), 박은영(사회복지학과 4학년)

서울사이버대학교 봉사동아리

나눔과 베품의 향기를 전하는 ‘민들레’

길가에 핀 노란 민들레는 따뜻한 봄을 알리는 전령사요, 보송보송한 흙씨를 세상에 뿌리는 생명력 높은 민초식물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에도 봄처럼 따스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의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민들레’가 있다. 바로 2012 SCU 베스트 동아리로 선정된 자원봉사 동아리 ‘민들레’다. 낮은 곳에서 낮은 임무로 큰 사랑을 실천하는 ‘민들레’ 회원들은 민들레 흙씨처럼 봉사를 통해 온 세상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다. 글 | 편집부

‘민들레’는 서울 남부지역 학우들을 중심으로 재학생뿐 아니라 그 가족과 졸업 동문, 교수까지 서사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봉사동아리다. ‘민들레’는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실천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 남부지역의 자랑이다.

희망의 씨앗을 나누는 사랑의 전도사

서울 남부지역 모임은 봉사동아리 ‘민들레’ 회원들의 모임이기도 하다. 2012학년도 베스트 동아리로 선정된 ‘민들레’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서울 봉천동 소재의 노인복지센터에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을 펼치고 있는 서사대의 대표 봉사동아리다. 구성원 대부분이 서울 남부지역 학우들이라 현재 최병모 학우(부동산학과)가 민들레 회장이자, 서울 남부지역의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최근 ‘민들레’회원은 서사대 학우와 그 가족들의 재능봉사 지원을 받아 피아노, 색종이 접기, 노래와 율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어르신들의 반응도 좋아 ‘민들레’는 요즘 봉사 시간 내내 보람을 많이 느낀다.

‘민들레’의 백운기 봉사국장은 “그동안 연말에는 특별한 봉사를 해 왔다. 금년 11월 초쯤에 현재 방문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에 기부금 전달과 음악, 미술을 아우른 특별한 재능봉사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라며, 함께 나눔을 실천할 서사인들을 위해 동아리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전했다.



‘민들레’의 봉사활동은 학우들과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및 자기만족감, 유대감 증진은 물론 자녀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한 전인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후기 학위수여식과 강 인 총장 취임

졸업생 모두가 금메달리스트 학업 마치려는 아름다운 노력에 갈채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이색적인 학위수여식이 열려 화제다. 지난 8월, 런던 올림픽의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다시 한 번 금메달의 감동이 맴돌았다.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였다. 정든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자랑스러운 학위 수여식 장면들을 연출했다. 한편 같은 달, 강 인 총장이 제7대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는 매년 이색적인 학위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림픽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이벤트는 많은 재학생들과 졸업을 축하하러 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많은 기쁨을 남겼다. 금메달을 향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도전만큼 아름다운 학업의 도전 속에서 졸업생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였다.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8월 18일 오후 2시 본교 4층 차이코프스키홀에서 2011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늘 자기계발에 힘쓰며, 학업을 마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졸업생들 모두가 금메달리스트’라는 의미를 표현코자 올림픽 시상식 콘셉트로 진행되었다. 학위수여식과 비슷한 시기에 서울사이버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선임된 강 인 총장과 다른 교수진은 직접 졸업생들에게 금메달을 걸어 주었으며, 졸업생들은 폴라로이드 기념사진 촬영으로 이색적인 학위수여식 현장의 분위기를 평생 기억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최고령 졸업생인 사회복지학과 정광선(남, 69세)씨와 최연소 졸업

생인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강혜정(여, 24세)씨를 비롯해 모두 551명의 졸업생들이 학위를 받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 1만 4,505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제7대 강 인 총장 취임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제7대 총장으로 노인복지학과 강 인(姜仁) 교수가 취임했다. 신임 강 인 총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정관리학과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부총장 직을 역임했다. 강 총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설립 12주년을 맞아 온라인 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새로운 한국형 온라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인 총장은 취임식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새로운 한국형 온라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오픈 캠퍼스 투어

캠퍼스부터 강의까지

미리 체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입학할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사전에 직접 학교의 최첨단 시설과 콘텐츠 제작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바로 오픈 캠퍼스 투어다. 오픈 캠퍼스 투어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통해 지원 전 궁금했던 사항들을 현장에서 직접 해소해 주고, 학교를 미리 탐색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012학년도 하반기 신·편입생 지원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서울사이버대 오픈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투어는 서울사이버대학 지원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사이버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이버대학 선택을 고민하는 지원자들에게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비교·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학교를 누비는 건 다름 아닌

학생들이라는 학교 생각 반영

더위가 한창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서울사이버대 오픈 캠퍼스 투어’ 현장 때문이었다. 지원자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최첨단 시설과 학교를 누비며,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 미리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지원 참가자들은 학교 소개 및 입학, 학습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콘텐츠 제작 현장 견학을 비롯해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몸소 체험했다. 이와 더불어 개인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임교수와의 1:1 맞춤 진학상담과 심리상담센터 견학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이번 캠퍼스 투어에 참가한 한 지원자는 “사이버대학교에 대한 궁금증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직접 학교와 커리큘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이버대 진학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번 캠퍼스투어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의 특강이 열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수준 높은 강의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지원자들에게 제공했다. ‘행복한 독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이시형 석좌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라이프사이클의 신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남은 미래를 똑똑하게 설계하는 방법 등을 강의했다.



이시형 석좌교수는 이번 오픈 캠퍼스 투어에서 정신과 전문의로서 최근 각광받는 뇌과학과 정신의학을 활용한 성공 메시지를 전파했다.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조직인 농협중앙회 본부 전경.

SCU & 농협

농업인의 삶과 질 높여 균형있는 세상 만드는 농협

농협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돕는 농협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손을 잡고 다문화상담과정 사이버교육을 시작했다. 글 | 편집부

농업인의 삶을 헤아리는 농협

농업은 한 나라를 일으키고 지탱하는 근간이다. 영농활동을 통해 농업을 지키는 지킴이가 바로 농업인이다. 농협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기여 활동을 하고 있다.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는 다양한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복지사업도 수행한

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까지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과 행복한 공감을 위한 선택

그 중에서도 농협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다. 현재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

죽 지원 프로그램은 이민여성들에게 한글교육과 한국사회 이해를 돕는 '다문화여성대학', 여성농업인 양성을 위한 각종 농업교육과 그 가족들에게 무료로 고향에 보내주는 '모국 방문 지원' 등이다. 이처럼 활발한 지원사업의 일선에서 활약 중인 농협의 여성복지 담당자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으로 이민여성들을 돕기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손을 잡고 다문화 상담과정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농협과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긴밀한 동행

농협 직원들 가운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은 157명에 이르며, 현재 학업에 정진하는 재학생은 휴학생을 포함해 94명이다. 그 중 60%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했다.

아울러 2006년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MOU를 체결해 전 형료, 입학금 면제와 등록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긴밀한 동행 덕분에 현재 농협 내 농촌복지담당 인력 대부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올해는 다문화상담과정을 신설하여 53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이처럼 농업과 농촌 현안에 대한 다양한 배려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농협은 본연의 자세에 충실한 활동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 농업과 농촌은 글로벌경제 침체, 이상기후와 가축 질병의 만연,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농협은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해 판매농협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린 다문화상담과정 수료식 장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으로 이민여성들을 돕기 위해, 농협에서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손을 잡고 다문화 상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을 구현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식사랑농사랑운동'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식생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농협. 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 생활이 더욱 윤택해지고 있다.

Mini Interview 농협 농촌지원부 김진국 부장

임직원 꿈과 능력이 사회 기여의 밑거름 될 것



김진국 부장은 "최상의 교육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교류를 시작하게 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며,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사이버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다. 농협 자체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예술과 문화, 외국어 등의 교양강의는 물론 승진에 필요한 직무필수 교육도 사이버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실시되는 농협사이버 교육 과정은 200개 과정에 30만 명이 교육에 참여할 정도로 임직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농협에서 농촌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진국 부장은 "농협이 직책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다문화상담과정을 개설한 배경에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농협의 높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발전과 자아실현을 위한 탁월한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연수원이나 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집합교육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 임직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점차 사이버교육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의 업무처리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동기유발'과 '의미부여'라고 말하는 김진국 부장. 그는 "비전과 꿈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고 느낄 때 열정과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며, 이번 다문화상담과정을 계기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농협 임직원들에게 더 큰 꿈을 심어주고 '같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했다.

EXHIBITION

덕수궁 프로젝트

살아있는 역사와 마주친 현대적 상상력



덕수궁 곳곳에서 한국 현대미술 작품과 마주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는 <덕수궁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덕수궁의 중화전, 행각, 함녕전, 덕홍전, 석어당, 정관헌 등 6개 전각과 후원에서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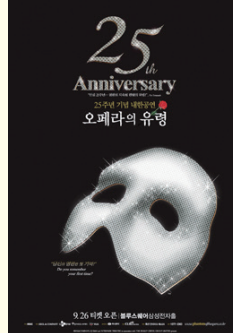
적인 조각·설치를 비롯하여 사운드 아트, 퍼포먼스, 공연 등이 펼쳐지는 것이다. <덕수궁 프로젝트>는 파란만장한 사건의 현장이었던 덕수궁 곳곳에 예술가의 상상력과 해석을 더한 현대미술 작품을 설치한다. 아나운서가 들려주는 궁중소설이 중화전 행각에서 들려오는가 하면, 화려한 중화전의 단청과 기와를 가득 덮은 미디어 맵핑을 야간에 감상할 수도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서도호, 정영두, 이수경, 임향택, 김영석, 정서영, 최승훈·박선민(공동작업), 류한길, 류재하, 하지훈, 성기완 등 한국 현대미술계의 쟁쟁한 작가, 디자이너, 무용가, 공예가 12명이 참여한다.

- 기간 : 2012. 09. 19 ~ 12. 02
- 장소 : 덕수궁미술관 및 덕수궁 경내

MUSICAL

오페라의 유령

탄생 25주년 기념 내한 공연



이번 공연은 2005년 월드투어 이후 7년 만에 찾아온 내한공연이며, 세계 뮤지컬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25주년의 해에 원어 그대로의 감동을 만날 수 있는 무대다. 이번 내한 공연은 케이프타운을 시작으로 요하네스버그, 마닐라를 거쳐 12월 7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오페라의 유령'은 1986년 영국 웨스트 엔드, 88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래 최장기 공연, 최고매출, 최다관객 등 모든 기록을 석권한 뮤지컬 역사의 상징적인 작품이다. 전세계에서 65,000회 이상 공연되었으며 27개국 145개 도시에서 1억 3천만 명이 관람했다. 티켓매출로만 56억 달러를 넘어서며 '아바타', '스타워즈' 등 어떤 블록버스터도 넘보지 못한 최고의 상품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확인시켰다.

- 기간 : 2012. 12. 7 ~ 2013. 1. 13
- 장소 : 서울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NETIQUETTE

직장내 메신저 에티켓

작은 예절 하나로 인터넷 문화 달라져요

메신저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필수 툴로 자리를 잡으면서 메신저를 이용한 업무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업무를 위한 단순 커뮤니케이션에서 다년간 대화를 통해 간단한 회의도 가능하고, 편리한 파일전송 기능까지 더해져, 메신저는 과거 메일이나 전화, 팩스의 업무를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내고 있다. 이처럼 업무 용도로 메신저가 널리 활용됨에 따라 직장 내 메신저 이용시의 기본적인 에티켓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 **센스있는 대화명 설정** - 전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어 이메일을 찾아보게 만드는 대화명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직장 전화번호나 직무 등을 살짝 드러내는 센스있는 대화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지나치게 딱딱하지 않지만 자신의 업무 관련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화명이 좋다.
- **자리비움 표시 남발은 금물** - 근무 시간 중에도 항상 자리비움이나 다른 용무 중이라고 표시하는 사람이 있다. 업무가 바쁜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



한 표시를 남용하다보면 결국 의미없는 것이 되고 만다. 실제 자리를 비울 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자리비움' 표시로 전환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 **업무용 대화내용 저장은 기본** - 최근에는 업무상의 주요한 자료나 수치 등을 메신저 대화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다. 대화창을 꺼도 이 자료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자동 저장 기능을 설정해 놓는 것이 좋다. 이미 대화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묻는 것은 업무 관계에서는 실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지나친 이모티콘 남발은 자제** - 업무용 대화에서 지나친 이모티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설정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이모티콘 사용 여부를 변경할 수 있으니 친구들과의 대화시에는 온(On)으로, 근무 중에는 오프(Off)로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FIND THE HIDDEN PICTURE

하늘을 향해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그네의 역동적인 모습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서사인의 열정과 비전을 봅니다. 아래 그림 속에 담긴 숨은 그림을 찾아 올려주시면 정답을 맞힌 분을 추첨하여 상품권을 지급해 드립니다.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홈-대학생활-이벤트)로 들어가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2012 가을호 숨은 그림 찾기

물고기, 밤, 버섯, 종, 자동차, 열쇠, 방울



2012 여름호 숨은 그림 찾기 정답



방어리장갑, 갈매기, 오키나와, 우산, 부츠, 자

2012 여름호 당첨자 & 한마디

홍라자 항상 잊지 않고 졸업생들을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과별로 이러닝 학습, 졸업 후 성공 사례담이나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합니다.

정용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장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경 정보전달도 좋지만 좀 더 재미있게 다양한 연령층이 읽을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법 같이 컴퓨터&인터넷 활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송규용 학생들이 속한 지역사회나 국제적으로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의 실상을 알려주어 공유케하며 일정기간을 정해서 각자 형편에 따라 조금씩이라도 나눔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심 많은 콘텐츠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 및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나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은 SCU e아기를 통해 알차고 효과적인 학습 노하우를 더욱 많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OOK

베스트셀러 추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시장은 과연 항상 옳을까? 모든 것을 사고파는 사회를 '마이클 샌델'과 함께 해부한다! 이 책은 <정의는 무엇인가>로 화제를 모았던 마이클 샌델이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시장지상주의의 맹점에 대하여 논한 책이다. 1998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강의에서부터 시작하여 2012년 봄학기부터 'Market & Morals'라는 이름으로 하버드대학교 철학 강의로 개설되는 등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하여 완성한 것으로, 시장지상주의의 한계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시장논리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여 '과연 시장은 언제나 옳은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며, 저자 특유의 문답식 토론과 도발적 문제제기, 치밀한 논리로 시장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철학논쟁을 펼친다.

■ 마이클 샌델 지음, 안기순 옮김, 와이즈베리 펴냄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은하와 태양계의 거대 세계로부터 양성자, 세포 등의 미시 세계 또 인류 문명의 기원과 그 토대가 되는 지구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이다. 다윈과 뉴턴, 아인슈타인, 호킹 등을 비롯한 과학자들의 이론을 한 권에 담아내려 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들이 우주에서 살아 있는 가장 훌륭한 성과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공포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구가 하나뿐이라는 사실과, 상황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도 단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여행 작가'라는 별명을 가진 빌 브라이슨은 영국에서 20년간 『타임스』와 『인디펜던트』에서 기자로 일했고 영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에 글을 기고했다.

■ 빌 브라이슨 지음, 이덕환 옮김, 까치 펴냄

SCU SYSTEM SCU 200% 활용하기 시리즈 ②

알고 쓰면 더욱 편리한 SCU e-도서관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하시는 학우님들을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e-도서관에 대한 상세한 이용안내를 소개합니다. 글 | 남상규 교수부처장

1) e-도서관이란?

전자책

- 전자책(e-Book: electronic book)은 종이에 인쇄된 형태의 책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가공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PDA 등 단말기를 통해 볼 수 있는 책을 의미합니다.
-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간행될 수 있는 저작물의 내용이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 전자 기록매체 저장장치에 수록된 뒤, 유무선 정보통신망을 통해 컴퓨터나 휴대폰, e-Book 전용 단말기로 그 내용을 읽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한 디지털 도서를 말합니다.

e-도서관

-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 반납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책을 대출, 반납하고 예약, 연장까지 할 수 있는 On-Line 디지털 도서관을 말합니다. PC뿐만 아니라 향후 핸드폰용 / 전용 단말기용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핸드폰, e-Book 전용단말기에서도 전자책 대출, 반납, 예약,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2) e-도서관 위치

- 우리 대학 포털에 로그인 후 상단 주요 메뉴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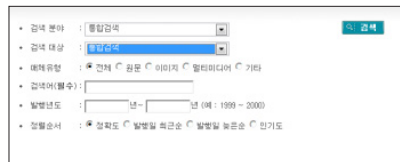
-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위 메뉴를 클릭하면 도서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3)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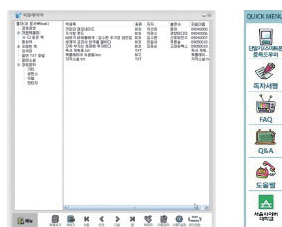
학술지/ 논문 검색

- 학생이 찾고자 하는 논문을 검색어로 찾아 학술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지식 DB, RISS 학위논문 DB, KISS 학술 DB, DBPIA 학술 DB 등
- 설명서 위치 : e-도서관홈페이지> 쿼메뉴> 도움말



전자책

- 크게 국내 전자책과 해외 학술 전자책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 북플레이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eBook)을 PC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책파일열기, 페이지이동, 글자크기 조정, 화면 크기 조정 등의 기능
- 위치 : e-도서관홈페이지> 쿼메뉴> 도움말



스마트폰으로 책 읽기

- 전자책은 PC뿐만 아니라 e-도서관에 등록된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 읽기는 여러분들에

게 지식의 습득 방법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 아이폰(아이팟, 아이패드)이나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등록 방법

- 스마트폰에 전자책 어플(북큐브 무료전자책 도서관) 설치 : 아이폰은 사파리에서 직접 주소(<http://bookplayer.dasangng.co.kr/app/bookcube.html>)를 입력하여 설치, 안드로이드폰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하여 어플(bookcube)을 검색하여 설치



- e-도서관에 스마트폰 등록



- 스마트폰에서 북큐브 어플 실행 및 북큐브 회원 가입

- 전자책도서관 클릭



<아이폰> <안드로이드계열폰>

- 서울사이버전자책도서관 선택

- 원하는 책 선택하여 읽기



바쁘시더라도 e-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여 지식과 교양에 부족함이 없는 멋진 서사대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2012 한마음 대축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6일 신일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제10회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재학생들과 가족, 졸업생, 교수, 직원 등 약 2,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Let's Go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명랑운동회, 연예인 초청공연, 불꽃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다. 10회째를 맞는 한마음 대축제는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사이버대학의 한계를 넘어 오프라인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가족 및 교직원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마다 재학생들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필리핀 인당시 부시장 일행 방문



필리핀 인당시 부시장 및 관계자들이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 바쁜 일정 중에도 본교를 방문하여 국내 최대 규모인 최첨단 이 러닝 강의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콘텐츠 제작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SCU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봉사단(단장 신동주, 사회복지학과 졸업)이 필리핀 인당시 지역에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10년 동안 SCU 사회봉사단 130여명이 필리핀 인당시 현지에 주택 33채를 지어주고, 지난해 11월 29일에는 강릉시 농악대원 30여 명이 농악공연과 노력자원봉사를 하는 등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무료 초청 행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6월 14일 신·편입생 지원자 240명을 예술의 전당에 초청하여 열린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무료 관람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명품 공연 초청 행사는 입시 지원자들에게 문화 예술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철저한 학생중심시스템으로 유명한 서울사이버대학만의 문화이벤트이다. 특히 이번 초청 공연으로 선정된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을 안무가 케네스 맥밀란이 발레로 재현한 작품이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7월 20일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이하 '해원협')와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교양 및 전공교육 강화를 위해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12년 2학기부터 학부 교양과정과 휴먼서비스 대학원에 이론과 실습을 접목한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특히 해원협이 개발한 국제개발협력교육 강사연수과정을 해당 교과에 포함시켜 이수한 학생들에게 별도의 수료증을 발급할 뿐만 아니라, 지식기부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협력 이해를 위한 교육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술의 전당 사장 모철민 박사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7월 23일 예술의 전당 사장 모철민 박사를 초빙 '우리 시대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모 박사는 1981년 행정고등고시(25회)에 합격한 이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 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2007년에는 한불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인간복지학부 교수진 평화방송 프로그램 공동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 인간복지학부 교수진은 평화방송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 간에 걸쳐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과 이슈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언제나 좋은 하루 - Bravo your life' 방송을 진행 중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부터 12시까지 한 시간 가량 방송되며 서울사이버대학교의 담당분야 교수들과 전문가의 대담 형식으로 매 방송마다 주제를 달리해서 진행 중이다.

2012년 2학기 멘토링 결연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8월 18일 2012학년도 2학기 SCU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 선후배 재학생 간의 교류를 통해 학습능력을 높이고 학교 생활을 더욱 뜻 깊고 보람차게 하기 위해 마련된 멘토링 프로그램은 서울사이버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다.

APL(애플) 강사과정 기초교육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8월 25일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군경상당학과 이정화 교수의 'APL(애플) 강사과정 기초교육'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했다. APL(애플) 강사과정은 뇌와 정신과정의 매커니즘을 탐구하는 신경과



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개인의 잠재력, 성격, 인지처리특성이론과 검사, 유형별 중재전략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교육과정이다.

‘부동산 절세전략 손자병법’ 교육과정 개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는 부동산 세무 교육의 권위자를 초청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부동산 절세전략 손자병법’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교육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총 4주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14시부터 3시간씩 학내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부동산 세무 실무전문가로 알려진 전성규 교수가 담당했다.

아세안대학연합 가자세니 사무국장 내방



아세안대학연합(ASEAN University Network/AUN)의 난타나 가자세니(Nantana Gajaseeni) 사무국장이 9월 3일 오후 서울사이버대학교에 내방하여 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 프로젝트를 위한 추진 계획과 함께 본교와의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앞으로 아세안 지역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러닝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2학년도 우수교원 시상식 개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9월 10일 2012학년도 1학기 ‘우수교원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우수교원 시상식은 외래교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교수자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 및 우수한 강사의 수업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수업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하고자 2007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실시되고 있다. 이날 최우수상은 이종분 교수가 수상했다.

이러닝 코리아 2012 국제박람회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교 홍보 및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신설홍보를 위하여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COEX에서 열린 e-Learning Korea 2012 국제박람회에 참가했다. ‘스마트교육의 새지평, 이러닝을 넘어’를 주제로 한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함과 아울러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학교 홍보, WAVE 안내 및 시연과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WAVE 봉사단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



서울사이버대학교 ‘WAVE 봉사단’은 9월 18일 번2동사무소에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찍어드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강북구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성태 학생처장과 재학생,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이성태 학생처장은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사이버대는 동아리, 봉사활동, 지역모임 등 다양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과 실습 활동을 돕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0월 12일 공무원연금공단 안양호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강인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 및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다.

이은주 부총장 외 보직교수 임명

서울사이버대학교는 9월 1일부로 새로운 부총장에 사회복지학과 이은주 교수, 입학처장에 상담심리학과 채정민 교수(미래사회연구소장 겸직), 대외협력실장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를 임명하는 등 일부 보직교수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이은주
(부총장)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사회학박사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수료



채정민
(입학처장)

- 고려대학교 심리학박사
-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 부회장 역임



차명희
(대외협력실 실장)

- 동국대학교 예술공학박사
- (현)한국산업기술재단 골드카드(IT)분야 심사위원
- (현)한국계임학회 이사

교수동정

김영민 교수, e-Learning 기반 물류교육에 대한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김영민 교수는 6월, (사)국제 e-비즈니스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학술논문 「e-Learning 기반 물류관리의 이론과 사례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김윤나 교수, 청소년 관련 논문 게재



사회복지학과 김윤나 교수는, 5월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학술논문 「청소년정책참여활동의 특성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6월 한국청소년정책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학술논문 「청소년유해매체관련연구 메타분석을 통한 환경중심모델 기반 청소년성보호대책」을 게재하였다.

박병석 교수, 동북아 공동체 건립의 방향 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물류학과 박병석 교수는, 중국사회과학원 한국연구센터가 발행하는 중문 계간학술지 『當代韓國』 2012년 제2기에 중문 논문 「동북아 공동체 건립의 방향: 문화공동체를 넘어 인류안전공동체를 향해」를 발표하였다.

박태정 교수, 『사회사업과 사회개발』 출간



사회복지학과 박태정 교수는, 7월 『사회사업과 사회개발-개발적 사회사업의 이론과 기술(양서원)』을 출간하였다.

서영수 교수, 『금융과 리스크 관리』 출간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는, 8월 『금융과 리스크 관리(교문사)』를 출간하였다.

이성태 교수, 작품 전시



뉴미디어콘텐츠공학과 이성태 교수는, 6월 일본 도토대학교에서 열린 <2012 Summer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Exhibi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에 작품을 전시하였다.

이우경 교수, 심리학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7월 발간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학회지에 학술논문 「한국판 상태 성인 애착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를 게재하였다.

이자영 교수, 상담심리 관련 논문 게재



군경상담학과 이자영 교수는, 6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발간한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에 “Student's perceptions of parental bonding styles and their academic burnout”을 게재하였다.

이향아 교수, 스마트 러닝 관련 논문 및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7월 ISCED과 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스마트러닝에서 교육용 앱의 상호작용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 분석」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 또한, 7월 뉴욕 School of Visual Art 갤러리에서 열린 <2012 뉴욕 국제초대전>에 「Green」을 전시하였다.

전광호 교수, 기업경영 관련 논문 게재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는, 6월 (사)한국상품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학술논문 「기업 간 관계에서 신뢰의 차원별 효과에 관한 연구: 관계기간의 역할」과 8월 기업경영연구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학술논문 「온라인 인증마크 유형별 온라인 신뢰구축 효과의 차이에 관한 연구」를 게재하였다.

차명희 교수,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 교수는, 5월 한국콘텐츠학회 <2012 Spring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에 「Social life」를 전시하였으며, 6월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2012 베스트 디지털 디자이너 국제 초청 정기전>에 「Yes! PyeongChang」을 전시하였다.

한수미 교수, 심리학 관련 논문 게재



상담심리학과 한수미 교수는, 6월 한국학교보건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학술논문 「대중매체의 자살보도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게재하였다.

허재현 교수, 보건경제 관련 논문 게재



보건행정학과 허재현 교수는, 3월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에서 발간한 학회지에 학술논문 「독일과 프랑스의 지불제도 고찰과 시사점」을 게재하였다.

교과부 종합평가 **최우수** 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해외에서도 인터넷으로 정규 **학사·석사**학위 취득

대학원 신입생 모집

2012년 11월 5일(월)부터

학부 신·편입생 모집

2012년 12월 1일(토)부터

입학문의 02-944-5000

최고 교수진
최첨단 26,000m² 교육시설



방송국 수준 스튜디오



멀티미디어 강의실



차이코프스키홀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2007 교과부 종합평가 최우수 서울사이버대학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서울사이버대학)**역 입니다.